(1) 2000년 대통령 신년사

2000.1.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지나간 천년은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평등의 실현 속에 평화와 인권과 정의 등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은 또한 지식혁명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혁명의 시대는 영토국가 시대와는 달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시대에는 지식혁명을 통해서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새천년은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 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새 시대에는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더불어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의 복지가 가장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국가는 일등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계층·세대·남녀·지역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와 단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화합이 실현되어야만 우리가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또한 남북한간 평화를 정착시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새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앞서가는 민주선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도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여야간 소모적 대결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여야 모두의 국민적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새천년은 새천년답게 정치가 보다 전국민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당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업, 문화, 과학기술,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문화나 교육의 측면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인사를 더 한층 공정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부존자원보다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빛의 속도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일류국가가 되고, 못하면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조선왕조 말엽같이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올해에는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의 완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IMF 등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과 인사들이 경고하듯이 이러한 구조개혁이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위기의 늪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추어, 어떠한 외환위기에도 맞설 수 있는 튼튼한 힘을 배양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물가안정의 기조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득을 올해에 다시 1만달러 시대로 회복시키고 2002년에는 1만3천달러로 올리겠습니다. 세계 7대 순채권국가의 위상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생산적 노사협력을 토대로 새천년의 新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부문개혁은 정부부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말까지 1,000억달러 수준까지 전망됨으로써 어떠한 외환유동성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없이는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수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등 교사의 위상과 사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생명과학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

학생 30만명에게 장기 저리로 학자금의 융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원천인 대학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총력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0년 목표의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정보유통속도가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전화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완결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와 全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정보생활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정리를 촉진하겠습니다. 전군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높이고 모든 장병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없이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으로 벤처기업을 현재의 5천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여

기서만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2003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전체예산의 5%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정보기술 등 첨단부문을 G-7 국가 수준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하여 특별포상을 수여하는 등 획기적으로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일·중·러의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20세기와는 달리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물류·금융·무역·투자 등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는데 절호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물류 중심기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의 항만과 공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향상을 위해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빈곤계층의 생계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로 대폭 현실화됩니다. 이제 절대적 빈곤가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될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저의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주택건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2002년까지는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함으로써 불안한 셋방살이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주택 50만호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집값의 1/3 수준, 전세금은 절반수준을 장기 저리 자금으로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더 한층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성과금 지급, 재산형성과 종업원 지주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크게 감면하여 700만 명의 근로계층이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육아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로연금 지급액도 상향조정하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의 취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은 젊은이들의 세기입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학업과 연구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문화・체육・레저・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책임이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1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금융 부채 이자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 연대보증 부담을 정부가 안고 농민의 보증은 해제해 주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문화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제개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정을 더한층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간의 공정분배에 노력하여 중산층 안정과 서민생활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고, 저의 임기 말까지는 소득분배구조에 있어서 OECD국가 중 상위권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정의 효율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지만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기구의 개편은 사전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사회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급을 임기 중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능력과 공로에 따른 보상제도도 적극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공무원들의 기존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뿌리뽑는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이를 다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관계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도움은 성의껏 제공하되 경제적인 교류는 상호이익이 되는 공존

공영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북한에 대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떠나 우선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응해올 것을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민족의 염원인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화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취임사에서 천명한 대북 3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셋째,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남북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각종교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리에 남북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우리 국군의 노고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평해전'에서의 승리는 국군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켰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군장병에게 국민적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새천년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습니다.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적 개혁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많은 참신하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신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시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과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과 세계일류 한국건설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경제적 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후발개도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천년을 위해 저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자랑스러운 조국, 살기 좋은 나라, 온 국민이 화합해 하나로 뭉친 한국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저도 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꿈과 희망의 시대', '기회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천년 새희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제 81주년 3.1절 기념사

2000.3.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새천년에 들어서서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을 여러분과 다 함께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거룩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뜻을 같이 기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남북한 전역에서 전 국민이 일어선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을사국치 이래 40년 동안 이 나라를 강점할 때 국내에서 혹은 국외의 시베리아, 만주, 중국대륙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무장투쟁을 한 점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식민지 독립투쟁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에 따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래 해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지키며 상해로부터 중경까지 전전하면서도 끝내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1운동은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불과 10년 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 왕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3.1운동은 중국, 인도 등 세계의 많은 식민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3.1운동과 선열들의 계속된 투쟁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3.1정신은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고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신이며 모든 국민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이는 3.1 독립선언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뜻과 일치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국민의 정부의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특히 인권의 신장이 괄목할 만큼 실현되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면 어떠한 시위나 집회, 파업도 이제는 원천봉쇄 당하는 일이 없

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자유는 언론인 자신들과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인정하듯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놀랄 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자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 민주노총이나 교원로조가 합법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기타 공무원들도 이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등 여성의 권리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혼란이 국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치가 안정되어야겠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중단하면 우리는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경제개혁 성과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파탄 직전에 있던 국운을 되살리고 6.25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98년 마이너스 5.8%의 성장으로 추락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는 10.2%의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물가는 사상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금리도 한자리 숫자입니다. 환율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대 선까지 내려갔던 주가도 크게 올라 이제 9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역흑자도 건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0억달러의 무역흑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외환보유고는 저의 대통령 당선 당시 불과 39억달러에서 이제 800억달러가 되어 OECD 선진 29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채권국가 중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변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2월 28일자에서 "한국을 보면 영화 타이타닉호의 비디오를 거꾸로 감상하는 것 같다. 대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다시 떠올라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것 같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한 평가처럼 이제 우리가 IMF의 위기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

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뿐입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전혀 새로운 패턴의 새천년의 경제여건에 적응하려면 참으로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20세기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즉 자본·노동·토지 같은 하드웨어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지식·정보·문화창조력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조상들의 덕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기반이 튼튼한 민족이고 또 문화적 창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 해동불교로 발전시켰고 유교를 받아들이면 조선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서 270년을 통치하고도 중국문화를 자기 것으로 재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중국인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천만이 넘는 대민족이 엄연히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3.1운동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민적 관심의 초점 중 하나인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의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줄기찬 노력의 덕택으로 우리는 다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회복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2만3천개가 문을 닫았던 중소기업은 작년 말에 다시 3만개가 창업되었고 지금 매월 3천개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별로 없었던 벤처기업이 지난 2년 동안에 4천8백개가 늘어나고 금년 말까지는 1만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산층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전자제품과 음료수 등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도 감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서 아랫목에서 중앙까지는 온기가 있지만, 윗목에는 아직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위 20%의 국민들의 소득이 국내 총생산의 9%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 재래시장을 찾아보니 너무도 썰렁하여 오히려 찾아간 것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구매력이 생겨서 경제도 더욱 좋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10조원을 들여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에 따라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약 100만원까지 그 수

입을 보장하여 생계와 의료, 교육을 뒷받침 해줄 것입니다. 약 40만명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정부가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30만명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융자를 하고 정부가 그 이자의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실과 마을회관 등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만명의 가난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비를 면제해 줍니다. 100만명의 주부에 대해서도 아주 저렴한 강습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약 1천만명인데 금년 중에 다시 1천만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임기 중에 전 국민이 컴퓨터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지식정보 10대 강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산업에 대해서도 지식정보산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지역주의를 악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러한 일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3.1정신을 거역한, 민족에 대한 죄악으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자유당, 민주당 때까지도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 경상도 지방에 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에 와서 당선되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물을 뽑은 것이 우리 선거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16 군사정부 이래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남북한조차 화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북분단도 통탄스러운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역을 가르다니 이러고서 우리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선열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3.1 운동이 어떠한 운동입니까. 전 국민이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평안도에서 경상도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투쟁한 민족독립운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 민족이 하나같이 그 뜻을 기리고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길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저는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화해 협력을 추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냉전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소원일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일과의 합의 아래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모두가 지지합니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까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이처럼 전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회복을 도와주며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양쪽이 다같이 이익을 얻는 소위 말하는 '윈-윈 정책'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정책이라 해서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연평해전이 그 좋은 예입니다.
저는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국방장관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한계선은 꼭 지키시오,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마시오, 북한이 발포하면 이를 단호히 분쇄하시오, 그러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효과적이고도 충실하게 이행해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만일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준 국군에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의미있는 두 가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 제2차 발사를 중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쟁의 위협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을 위시한 남북간의 문화·스포츠교류는 물론, 경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개가 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고, 대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남북간의 교역은 3억3천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일관성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저의 임기 중에 냉전종식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추구할 단계가 못됩

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도 남북간에 전쟁을 하고 50년 이상 무장대결을 한 처지에서 정신적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룩해온 이 민족이 어찌하여 50년 분단 때문에 통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3.1정신을 가슴에 되새기며 때가 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같이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한 때 잘못으로 후손들은 일제통치, 국토분단, 한국전쟁, 냉전대결 등 100년 이상 앙화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또다시 후손들에게 그러한 죄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미 말한 5대 과업, 즉 민주국가의 완성, 지식정보국가의 건설, 생산적 복지의 실현, 국민적 대화합,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반드시 실현하여 새천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듭시다.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킵시다. 7천만 민족이 얼싸 안고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구가하는 그 날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전체의 행복을 실현시키고 후손에게 3.1선열과 같은 자랑스러운 조상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3) 베를린 자유대학 대통령 연설문

2000.3.9

존경하는 피터 궤트겐스 총장, 존경하는 교수 및 내외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번영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유서 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 및 학생 여러분과 더불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아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정어린 환영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 대학 출신들이 지난 48년 개교한 이래 동서독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독일통일을 앞장서 이끌어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분단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통일에의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휩쓴 경제적 위기를 국민과 정부의 헌신,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97연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8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98년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금리, 외환, 증시 등이 모두 전례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년내에 4%까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은 비록 독일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유사성 때문에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

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50여년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온 중국,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험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완고한 폐쇄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온 서독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대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대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동서독간의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완화시켰습니다.

셋째, 서독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놀랍게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년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셔 전 외무장관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 통일이후의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고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그것은 첫째, 엄청난 자금의 소요입니다. 2천억 마르크면 된다던 통일비용이 10배나 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둘째, 구동서독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독은 경제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독과 전쟁을 한 일도 없고, 통일 전에 많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 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습니다. 동독 국민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북한밖의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서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의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요,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통일방식은 앞서 말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독일의 지도자로부터도 많은 찬성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도 개방과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는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화해·협력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 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북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을 TV화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여 굶주린 북한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작년에는 사상최고인 3.4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시작되거나 협상중입니다. 금년에는 서해공단의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남한의 대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곳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머지 않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과의 국교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경제개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

다. 비료,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경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한국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국민은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먼저 이룩한 독일 국민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독재자의 억압 속에 신음할 때 독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리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재자와 싸우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30년의 망명・연금・감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국민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내 일과 같이 나와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가장 충실하고 우정이 넘친 친구로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자유대학 여러분들과 함께 새천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대통령 방북성과 대국민 보고

2000.6.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환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의 환대를 저에게 베풀었습니다. 공항에 직접 출영하고, 오늘 돌아올 때 공항에도 환송을 나와 주었습니다. 회담과정에서는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우리가 성의껏 노력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바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평양시에 들어갈 때 60만, 나올 때 30~40만, 모두 약 100만의 평양 시민이 열광적으로 저를 환영하고 환송해 주었습니다. 평양 역사상 처음 있는 큰 군중의 환영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양 시민의 환영에 대해서, 같은 혈육의 정으로서 환영해 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감사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거의 한 나라의 예외도 없는 적극적인 성원,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국내의 TV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보도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 보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없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얼마나 열망하는가 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공을 못 했을

때 그 엄청난 파장,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 가져올 세계사적 큰 발전과 전환,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온갖 성의와 지혜를 다하자 이렇게 다짐을 몇 번했었습니다. 저를 수행한 우리 보좌진이나 또 특별 수행한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저의 일을 지원하는데 측면 지원의 역할을 많이 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도 가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살아왔건 마음 속으로는 남쪽 동포들에 대해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조금 말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통일을 이룩한지도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가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조 말엽에 국민이 단합하고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내부가 산산히 분열되고 근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망국의 설움을 얻고 일제 35년 8.15의 분단, 6.25의 전쟁, 지금까지의 철조망을 사이에 놓고 대립, 100년의 앙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세계가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같은 민족끼리 내부에서 힘을 탕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당장의 통일은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하늘도 트고, 길도 트고, 항구도 트고,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고 같이 경제 발전시키고 문화 교류, 체육 교류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적 전통, 문화 창조력 이것이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자산이 아니겠는가. 이제 4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4대국이 우리 시장으로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때 우리가 정신차려서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화 통일도 안 되고 흡수 통일도 안 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을 하면서 차츰 통일의 길로 나가자. 민족을 이 21세기의 절호의 시대에 세계 일류의 그러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측에 역설하고 그분들도 동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아무 걱정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의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보, 대한민국의 주체성, 여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되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협력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종국에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자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핵 이야기도 했고 미사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얘기한 가운데 그 대화가 매우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국민에게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것은 7.4공동성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7.4공동성명 발표한 것이 28년인데 아무 것도 되지 않았느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얘기했는데 아무 것도 안되지 않았느냐. 또 92년 2월에 남북이 합의서를 발표해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 등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원칙을 주장하던 7.4공동성명,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던 남북합의서 다 효과를 못 봤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쥔 것부터 실천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 정상회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주는 회담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민족 자주, 통일, 평화 이런 듣기 좋은 말만해서는 이제는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항 이하에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에 합의를 봤습니다. 실천을 곧 할 수 있는 일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2항은 우리가 주장해 온 남북연합입니다. 즉 2체제 2정부를 현재대로 놔두고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를 구성하고 장관 각료급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회의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입니다.

그에 비해 1980년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정부가 외교권, 군대통솔권을 다 가져야 한다. 남북 양쪽의 지방정부는 내정권만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연 이행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북한은 이 점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 연방이 갖겠다는 외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장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상통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 대표가 한번 같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 학자들도 오고 전문가들도 와서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일운동 사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남과 북은 오는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얘기할 것은 이 문장 해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실향민, 흩어진 이산 가족들의 문제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번 8.15까지 북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통크게 한 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한 장기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소. 먼저 잘 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6월 달부터 적십자사가 곧 가동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 합의를 해서 내가 서울 돌아가는 즉시로 적십자에 요청해서 북하고 접촉하라고 하겠다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는 앞으로 그 범위가 얼마만큼 갈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이 문제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렇게 북한하고 합의봤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문제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깔고,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항만・통신 등을 해 나갈 때, 또 북한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진출할 때 지금

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한 내부에서의 경제가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도 남도 다같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차가 왜 런던을 못 가고 왜 파리를 못 갑니까? 경의선, 경원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만주에서는 기차들이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경인선은 불과 25킬로 정도밖에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으면 곧 갈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30%가 절감이 되고, 수송 날짜가 훨씬 줄어듭니다. 북한하고만 해결되면 우리는 유럽까지 승승장구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천년의 실크로드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크게 경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북한의 노동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은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노임도 훨씬 저렴합니다. 남한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북한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 도움이 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철칙으로 둬야 할 것은 남만 좋아도 안되고 북만 좋아도 안되고 양쪽이 다 좋아야 오래 가고 그래야 화해가 있고 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윈윈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 협력을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해가기로 김정일 위원장과 확실히 합의를 봤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인 실천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북에서 임명한 당국자들이 곧 북한하고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이것을 합의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중에 택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서울을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만 왔다가고 김 위원장은 안 오면 저거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 살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다같은 우리 강산이고, 다같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고, 다같은 한국 사람의 생각과 인정과 모든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하고 아주 상이한 사상적 토양에서, 그런 정치체제 아래서, 그런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가 한국 사람 특유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해놓고 7.4 공동선언이 28년간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도 우리 동포다, 그들도 우리하고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런 토대만 닦아놓고 내가 물러난다면 또 뒤에 오는 분이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번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고 크게 세계 속에서 일류 국가로 웅비해 보자. 주변 4대국이 이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전부 우리 시장이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적 기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지식기반시대에 이런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나가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북한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철통같이 하되,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화해 협력하기 위한 안보,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나는 우리 조상들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반도 전체의 조국을, 번영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에게 있는 능력껏 힘을 다해서 국민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 성원에 감사하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0.8.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

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입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

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

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

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 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

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6) 유엔 천년정상회의 대통령 기조연설문

2000.9.6

존경하는 각국정상,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남북간을 가로막아 온 냉전의 빙벽에 따뜻한 햇볕이 비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15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8월 15일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유엔과 전세계 지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유엔천년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이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큰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년반 전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부터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엔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빠짐없이 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다같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되 당장의 과제로는 남북한이 평화정착과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하며 남북 모두가 더불어 성공하는 통일을 이룩하기로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간의 교환방문, 각료급 회담 등을 계속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증대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선두에 유엔이 있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새천년의 기적은 성공의 역사로 발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지도자 여러분!

유엔은 지난 20세기에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일 유엔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전쟁과 재난이 인류를 괴롭혔겠습니까. 유엔의 창설이야말로 20세기에 있어서 인류 최대의 위업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에서 유엔이 해결해야 할 임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세계적 평화의 실현,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 발전지원, 인권의 신장, 빈곤의 퇴치, 테러의 방지, 지구환경의 보존 등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21세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희망에 찬 세기로 만들도록 힘써 나가자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은 앞으로도 유엔의 고귀한 역할에 대해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